

7.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사티어(V. Satir)의 경험적 가족상담 이론을 토대로 서희(중2, 여) 가족을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. <작성 방법>에 따라 서술하시오. [4점]

[A] 상담교사: (가족 간의 대화를 관찰하고 있다.)
어머니: 서희야, 요즘 도대체 왜 그러니? 집에 오면 네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기 일쑤고, 엄마랑 눈도 안 마주치고 있잖아. 게다가 매일 스마트폰만 붙잡고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니?
서희: 공부! 공부!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.
어머니: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잖아.
아버지: 서희야, 여보! 이제 그만 좀 합시다.
어머니: 여보, 당신이 자꾸 그렇게 내 말을 막고 좋게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서희가 저렇게 버릇이 없어지잖아요. 이럴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.
상담교사: 네, 잠시만요. 지금까지 가족 간의 대화를 들어보니, 서로 서운하고 속상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.
어머니: 말로는 다 할 수 없지요. (한숨을 쉰다.) 서희 뒷바라지하느라 저희 부부는 모임 한번 제대로 나가 본 적도 없고,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.
서희: 저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학원만 왔다 갔다 하고, 친구도 없다고요.

... (중략) ...

[B] 상담교사: 서희가 주도적으로 가족의 모습을 배치하여 가족조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서희와 엄마는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자세를 취했고, 아빠는 엄마와 서희 앞에서 한 쪽 무릎을 꿇고 가족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러한 모습을 관찰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나요?
서희: 저와 엄마는 서로 화내고 비난하고 각자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.
어머니: 그러게요.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,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
상담교사: 네, 그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군요.
어머니: 네.

[C] 상담교사: 그러면 서로에게 듣고 싶었던 말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?
어머니: 네, 저는 서희와 남편이 '고마워.'라고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
서희: 저는 부모님께 '너를 믿는다.'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.
아버지: 아내와 서희가 예전처럼 그냥 편하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상담교사: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부터 그 모습을 가족조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

—<작성 방법>—

-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상담 이론에 근거하여, [A]에서 보이는 역기능적 가족 체계의 명칭을 쓰고, 그 체계의 특징을 2가지 서술할 것.
- [B]와 [C]를 비교할 때, [C]의 가족조각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1가지 서술할 것.

8. 다음은 사례회의 중 지아(중3, 여)와 주호(중3, 남)의 홀랜드(J. Holland) 진로탐색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상담교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. <작성 방법>에 따라 서술하시오. [4점]

김 교사: 두 학생의 홀랜드 진로탐색검사 결과를 보면 지아는 각 흥미 유형이 모두 높게 나왔고, 주호는 R형과 S형이 높게 나왔어요.
박 교사: 지아의 경우 모든 유형이 높게 나타나고 유형 간에는 서로 1, 2점 씩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(㉠) (이)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면 흥미 유형이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. 홀랜드 이론의 (㉠) 개념은 개인의 흥미나 환경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.
이 교사: 주호는 R형과 S형이 동점으로 다른 유형보다 월등하게 높네요. 이 두 유형은 육각형 모형에서 대각선에 위치해 있잖아요. 홀랜드가 제시한 (㉡) (이)라는 개념은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유형 간의 이론적 관계를 육각형 모형으로 구성한 원리를 말하는 거죠?
김 교사: 맞아요. 저도 (㉡) 개념은 육각형 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 개념을 거의 쓰지 않죠.
박 교사: 네, 그러네요. 저도 (㉡) 개념보다 ㉢ 일관성 개념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줘요.

—<작성 방법>—

- 괄호 안의 ㉠과 ㉡에 들어갈 개념의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.
- 괄호 안의 ㉠ 개념과 밑줄 친 ㉢ 개념을 각각 적용해서 주호의 검사 결과를 서술할 것.